

광주서 '지지율 회복' 승부수... 安·차은 '시큰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역사입니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뒤 대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재인 대표 '문·안·박 3톱 지도체제' 제안 배경과 전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3톱 공동지도체제' 카드를 꺼내놓고 당 내홍 진화를 위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확답을 미루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행법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당내 비주류 진영이 강력 반발, 문 대표의 승부수가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안·박'체제 제안 배경은=문 대표가 '문·안·박'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한 데는 당내 비주류의 거센 사퇴 압박을 거부하고 현재 당내 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 전당대회, 조기 선대위 구성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거취문제를 제기한 비주류에 대해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반혁신·과거세력'으로 규정해 비주류와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한 당 부정부패 타파,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아주 광범위한 인적 혁신도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 때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이뤄질 것임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명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호남의 지지율

안철수 "당 안팎 의견 들어 봐야..."

박원순 "현행법상 참여 어려워"

비주류·호남권 의원들도 반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남에서 자신의 지지율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박원순·안철수 지지율은 견고하다는 점에서 '3톱 체제'로 갈 경우 호남에서의 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3톱 체제 가능성은 '희박' =문 대표는 이날 안 전 대표가 제시한 혁신안 일부에 대해 "백번 옳은 얘기"라며 수용 의사를 나타냈지만,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안팎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먼저 중심이 돼 당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은 시장으로서 (현행법상) 나설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선거조직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안·박 체제 대표의 권한을 나누고 최고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 체제를 공동지도체제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전 당대회를 통해 당원 및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설득해 사퇴시키는 것도 절차상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주류·호남권 의원 반발 =문 대표의 '문·안·박 체제'에 제안에 대해 비주류 진영에서는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안아 비주류를 분열시키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비주류 인사들은 공천권을 요구하는 반혁신·과거세력으로 낙인찍은데 대해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호남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호남 민심 이반 등 새정치연합의 위기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및 비전 실종에 기반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고 끝까지 당권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안·박 연대는 사실상 호남 정치권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의원들이 문·안·박 체제 반대를 넘어 문 대표 사퇴론을 공식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 지도부-광주시장·전남지사·전북지사

23일 국회서 호남권 예산협의회

이정현 최고위원 제안으로 성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소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오는 23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심사 관계자, 호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18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 아침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을 모시고 예산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참석하고,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 전원, 그리고 재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와 관련 광주·전남·전북도 현안 신청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초청 아래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김무성 대표께 건의했다"며 "이에 김 대표께서 기꺼이 수락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자동차밸리 예산, 경전선 예산,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 중 지킬 것은 지키고, 증액해야 할 것은 증액하고, 신선했던 것은 신선했던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31일에도 이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순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과 윤 시장, 이 지사, 송 지사가 참석하는 광주·전남·전북도 예산정책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서화합으로 사랑을 나누는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전라남도 ↔ 교차 지원 ↔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세대화합, 더 나아가 상호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며, 22개시군 내 후원자와 기업,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후원문의 | 061-274-0041
후원계좌 | 농협 301-0081-6148-11 (어린이재단)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수급아동	절대빈곤아동
전라남도	4%	11.7%
경상북도	4%	11.7%

※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13)에 따른 절대빈곤율 11.7%를 적용

소중한 동서화합천사기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1,004명의 후원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 정기 후원

1억원 대표후원처

» 천사보금자리 및 문화예술사업에 기금 사용

천사보금자리

화장실 문도 없는 푸세시 화장실, 그리고 목실이 없어 수돗가에서 샤워하는 동천이(가명)에 주거 지원

문화예술사업지원(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심리적 발달 및 빈곤문화의 개선 프로젝트

반복하는 역사... 30년전 그대로 벼 야적 투쟁

김은영
'그림 생각'

(136) 역사

이중구 작 '속·농자천하지대본'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역사의 반복성'을 든다.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의 선례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역사를 교훈 삼아 미리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혁, 청년 실업과 빈부 문제 해결을 외치는 시위 등을 보아도 '반복하는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풍년의 기쁨도 잠시 쌀값 폭락으로 시름만 깊어가는 농민의 벼 야적 투쟁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그것은 또 농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한층 복잡하다.

이중구 작가(중앙대 교수·1954~)의 '속·농자천하지대본-연혁'(1984년 작)은 30여 년 전 작품이라 오래 전 기억을 끄집어내는 격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30년 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80년대에 극사실적 기법으로 우리 농촌과 농민을 다양한 연작으로 그려온 농민화가답게 작가는, 평범한 농부의 수고와 땀방울, 진솔한 삶을 화폭에 담아내는 동시에 농업의 현실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왔다.

작가는 농부인 자신의 아버지를 화폭에 담아 우리나라 농촌과 농부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초상과 노동을 하면서 받은 상장은 아버지의 성실한 삶을, 추수한 후 벃단을 안고 있는 농부는 웃고 있지만 실제

로는 농민이 주인 되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의 글"에서도 밝혔듯 화가는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임을 농민들의 초상으로 말해온 것이다.

"고부에서 여의도까지" "아버지의 소" "종자" "밭" 등의 작품에서 농민들의 순박한 삶과 노동, 생명을 유지시키는 농사의 의미를 현실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전통적인 캔버스 대신 양곡부대, 밭상, 소반, 한지, 부대종이 등으로 재료를 확장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